



네오아트센터 기획 초대전

장부남
“덜어냄의 미학”

2026. 6. 24. WED — 8. 15. SAT

OPENING

2026. 6. 24. WED 16:00

3, 4전시관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CHANG BUNAM '96

장부남

Chang Bu Nam



청주사범학교 본과 졸업

중앙대학교(예술대) 회화과 졸업

수상 경력 /

2014 오늘의 미술인상

2019 대한민국미술대전 조직위원

2022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미술교육)

2022 20대 대통령 취임기념 어린이 미술축제 주관

2023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국제미술교류)

2023 제1회 분중문화상 인재지원상 수상

전시 /

개인전 25회, 단체전 500 여 회

저서 /

화가장부남의 모던아트이야기(2002. 흥인)

모던아트이야기1(2008. 혜지원)

호기심이 샘솟는 창의력 미술가계(2010. 혜지원)

하늘이 남보 -화가 장부남의 예술과 삶-(2020. 도서출판 아트뱅크)

충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외래교수 역임
대한민국회화제 대표,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역임
단원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회화대전, 서울미술대상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충청북도미술대전 등 운영위원장 및 심사위원장 역임

現)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사장
대한민국회화제 상임고문
(사)한국미술협회 고문, 광진미술협회 고문, 한일미술교류회 고문,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고문
현대미술 신기회, 종로미술협회, 씨올회 고문
충청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아세아 현대미술 교류회 초대작가
동경 현대미술가회 정회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산하 한국미술품감정평가위원회 최고총괄위원
국제미술위원회 운영위원
프놈펜예술대학 명예교수

작품 소장처 /
서울고등법원, 청주시립미술관, 일본한국문화원, 서귀포미술관, 청주검찰갤러리, 청주검찰청,
한국발명진흥청, 양평천주교회, (주)메디슨, 청주교육대학교, 한국장학재단, 춘천우체국,
청주대학교, 리안호텔 외 다수

장부남 작가, 서러움을 생명으로 치환한 ‘덜어냄의 미학’

요즘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얼마 전 일이라 여겼던 사건이 수년 전 과거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묘한 먹먹함이 밀려온다. 최근 시간의 흐름 앞에 서성이던 나를 붙잡은 건 장부남 작가의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다시 접하게 된 작가의 작품이었다.

켜켜이 쌓인 물감 층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숫자와 문자 파편들은,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져 간 존재들에 대한 은유로 다가왔다. 작가는 마모되고 잊혀 가는 파편들을 캔버스 위에 정성스레 모아 침묵을 대변하는 역사를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년 청주 시립 미술관에서 강한 인상으로 처음 접한 장부남 작가 작품을 동행했던 김지현 교수의 도움으로 작가와 인연이 닿았고, 종로에 위치한 장부남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은 평생 캔버스에 덮여온 물감의 두께만큼이나 깊은 예술혼이 숨 쉬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청주에서 작가의 삶과 추억을 담아내는 특별한 초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상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작년 평창에서 박영복 작가 초대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젊은 시절 박영복 작가가 장부남 작가가 운영하던 화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당시 화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장부남 작가는 후배인 박영복 작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대학 강단에 서서 경비를 조달하면서 화실을 운영했다. 박영복 작가는 그 시절 화실을 지켜내며 노하우를 배워 훗날 자신의 화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1951년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내려온 열 살 소년, 장부남의 삶은 서러웠다. 1953년 청주교동초등학교로 편입한 소년은 운명처럼 이호우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끼니조차 잇기 어렵던 소년에게 크레용과 밀개 떡을 쥐여 주며 그림을 권유했다. "그 밀개 떡만큼 맛있는 것은 없었다"는 회고처럼, 그 온기는 평생의 지지대가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 평생의 절친이 된 한장훈(현 청주 감초당 한의원 원장)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친구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밥을 함께 나누어 먹던 추억은 두 사람의 가슴속에 뭉클하게 남아 있다.

수많은 역경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초기 그림에 복잡하게 표현되었다. 전환점은 사범학교 선배인 윤형근 화백의 조언이었다. 윤 화백은 “그림은 소설이 아녀. 가슴에 응어리 된 것을 토해내는 시(詩)와 같은 거여. 혼이 있어야 하는거여”라며, "머리로 그리면 여운이 없어. 군더더기 잘라 버리고 시처럼 외마디 소리에 담을 수 있으면 최고여"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1981년작 <슬픔>은 그 과도기적 기록이다. 화면에 사정없이 긁어 내려간 '읽히지 않는 숫자'들은 거대한 비극 속에 사라져 간 익명의 존재들이자 작가가 겪어낸 상실의 시간이었다.

소설 같은 복잡함을 지우고 시와 같은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2000년 무렵이다.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등장한 '녹색'은 고향 황해도의 평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작가는 생의 희로애락을 화면 위에 쏟아낸 뒤, 거친 나이프질로 연녹색 물감을 덮어버리는 작업을 감행했다.

이 녹색의 마티에르는 상처를 지우는 은폐가 아니라, 서러움을 생명의 에너지로 치환해 낸 '덮어냄의 미학'이자 치열한 수행이다. 그렇게 탄생한 2010년작 <희망>은 숨 가쁜 삶의 숫자들을 덜어낸 자리에 찬란한 평원을 표현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 '정답 없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따뜻함을 주는 작품이다'. 이 단순함의 미학은 내 사무실 벽에 걸린 장부남작가의 2015년 붉은 캔버스 소품에서도 빛난다. 매일 이 그림을 마주하며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림 참 좋다"고 감탄하며 "이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고 쉽게 말하곤 한다. 피카소가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듯, 거장이 온갖 조형적 투쟁을 덜어내고 도달한 종착지가 바로 이 편안한 단순함이다. 그 쉬운 그림 속에 작가의 에너지와 내공이 응축되어 있다.

장부남 작가는 이번 네오아트센터 초대전을 앞두고 "진짜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마음이 짠하다"고 작가노트에 고백했다. 그러나 내가 본 장부남 작가는 고령임에도 청년 못지않은 에너지가 넘쳤다. 오늘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큰소리치며 붓을 드는 모습에서, 이번 전시가 쓸쓸한 마침표가 아님을 확신한다. 군더더기를 베어내고 삶의 온기만 남긴 거장이 우리에게 건네는 눈부신 절정의 초대장이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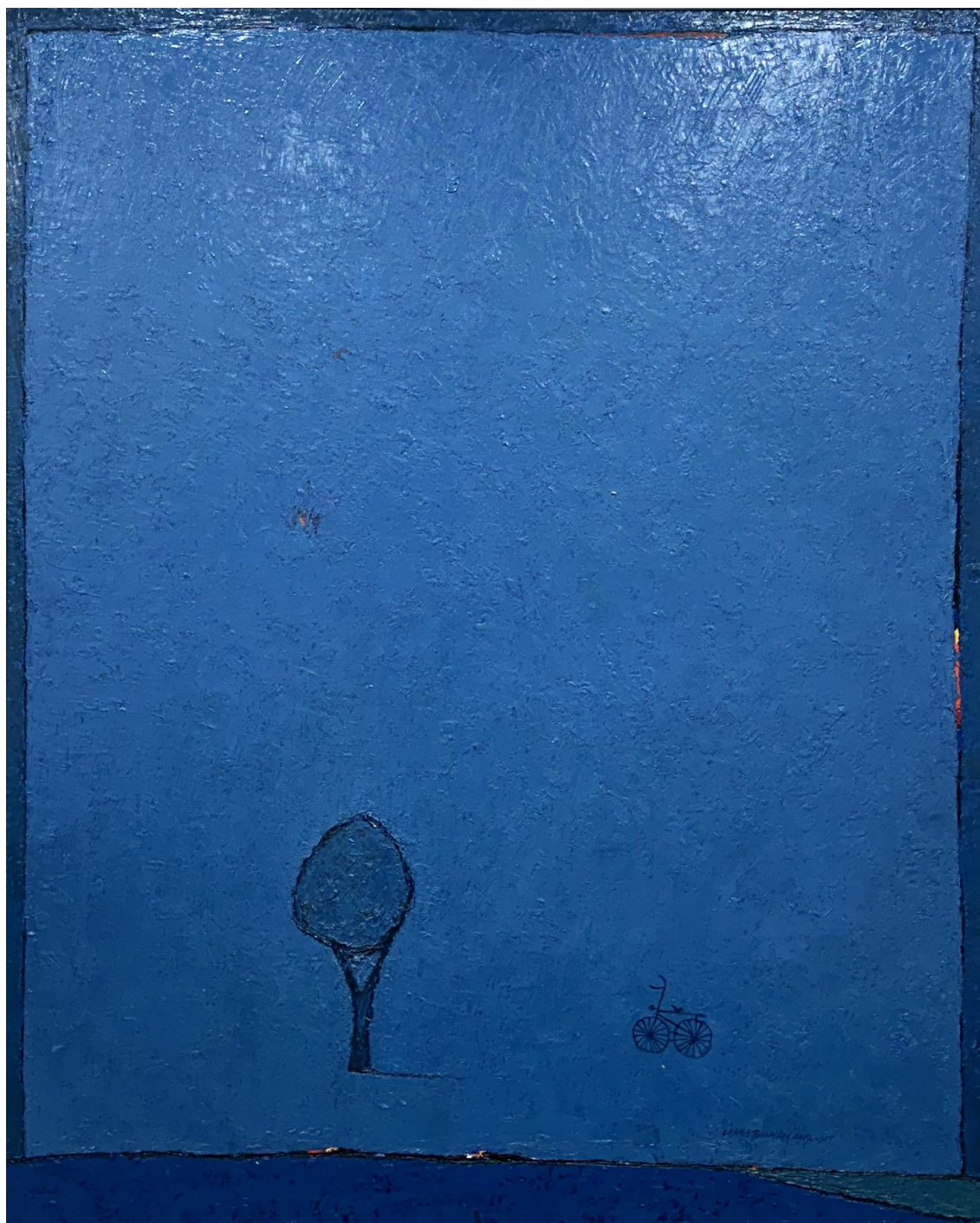
슬픔

130.3x162.2cm, 유화,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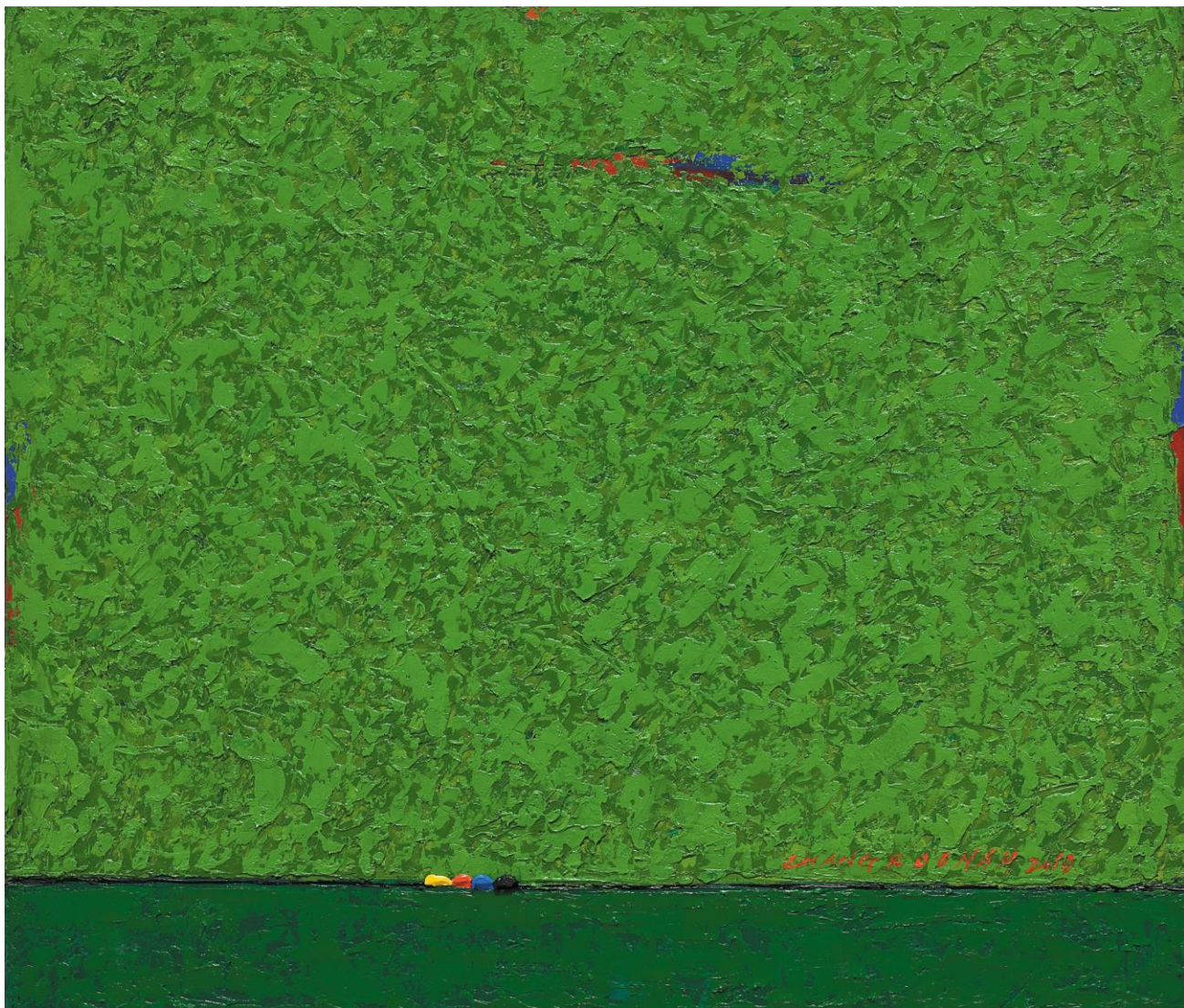
평화

116.7x91cm, 유화, 1996



하늘이남보 617

130.3x162.2cm, 유화, 2002



희망

53x45cm, 유화, 2010

NEOArt